한국수자원공사

1 경영관리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ESG경영 평가 목표 상향, 이사회 활성화 및 근로자 참관제 내실화, 가치체계 내면화 평가지표 개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판단 기준 제시, 이해관계자별 기대·요구 식별, 사업별 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 마련, 비계량지표 목표 명확화 등의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관하여 기관은 대체로 평가 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 초기에 있는 사업별 시장 변동성에 대한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설득력 있는 개선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기관이 글로벌 특화 비전 하에 2035년까지 해외 분야 매출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가 부각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기관의 투자심사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취약 요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의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된 전년도 경영평가 시 지적사항 중 하나는 비계량 지표의 성과목표를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기관은 신규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비계량 성과지표의 분기별 실행 마일스톤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략계획상의 성과지표를 전년 대비 약 40% 교체하였는데, 이는 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표를 변경하거나 환경 및 산업체계 변화에 따른 물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기관은 중장기 전략계획과 기관장 성과계약의 변경을 연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성과계약의 세부 과제와 전략계획 상의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성과목표 3인 “글로벌을 선도하는 물융합 가치 창출”의 세부 과제인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성과목표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건수로 측정되는 반면, 전략계획 상의 성과지표는 기관 자체의 해외사업 매출액과 초격차 해외사업 수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양자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장 경영성과계획 상의 세부 과제 수준의 성과목표와 전략계획 상의 중점 과제 수준의 성과목표 간 연계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지표 체계 간의 기계적인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장 성과계약과 전략계획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관은 기관장 성과계약 관리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사 핵심과제 관리 시스템(K-Best)과는 별도로, 기관장 성과계약과제 관리에 특화된 ‘CEO 과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경영계약의 세부 과제별로 사전에 설정한 시기별·단계별 목표에 미달하는 실적이 발생할 경우 조기 경보를 발동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하는 등 개선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확인된다. 이 결과 기관장 성과계약 18개 세부과제 중 대부분이 성과목표에 도달하였으나, 미달된 두 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과제관리시스템과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가 나타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에 미달한 성과지표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중대재해 6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기관장 주도하에 재발 방지 대책이 충실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기관은 신임 비상임이사 온보딩 프로그램인 ‘웰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요 현장 방문과 10회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여 비상임이사의 기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임 비상임이사의 첫 이사회 전에 맞춤형 보고가 강화되었고, 신임 비상임이사의 제언율과 안건 반영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반영된 경영제언이 실제 기관 사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되어 이사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 활동에 대한 환류가 특정 사안의 결과 보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환류를 강화한다면 비상임이사의 기관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노동이사의 경영 제언 건수와 대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 참관제 운영 실적 역시 근로자 대표의 참석률, 의견 개진 건수, 의견 반영률 등이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과는 안건 사전 설명 시기를 앞당기고, 안건 설명을 정례화하며, 정기 이사회 안건 외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니어보드는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제도'를 통해 검토 의견을 안건 자료에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기관은 '신성장 스피드업 추진단'과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 추진단'을 설치해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세부 과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은 '글로벌 특화'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탑2 물기업'을 목표로 하는 2025~2029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기존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선진국 시장 확대 등 기존 사업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비전은 재구성된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반영되어, 핵심 프론티어 라인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글로벌 핵심사업과 연계되고, 기획·기술개발·마케팅 등 기능별 협조와 조정을 위해 신사업전략부를 컨트롤타워로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 개편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 점이 확인된다. 한편, 해외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기관이 설치한 사업관리위원회(분기)와 리스크관리위원회(필요시)가 실제로 적시에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세부평가내용 ④와 관련해 기관은 기존에 경영혁신, 디지털전환, 기술혁신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혁신 프로세스를 경영혁신실이 총괄하고, 다른 부서는 지원 역할을 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전사적 시너지 확대를 위한 체계를 도입한 점이

2024년도의 주요 변화로 나타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은 '혁신:커넥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구성원의 혁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고 혁신 경진대회 대상자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혁신과제 수가 28% 증가하고, 우수 성과 건수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관이 기대하는 대로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고 있는지, 또는 권한 집중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의 적극행정 실적을 살펴보면, 실시간 Q&A와 '면책신고인 컨설팅' 제도 도입,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창구를 활용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 기관 내외에서 적극행정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에는 38건의 사전 컨설팅과 17건의 적극행정 면책을 지원하였으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7개 혁신기술 등 판로 다각화 실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K-테스트베드 인증 사전 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30일을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적극행정 실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부평가내용 ⑤와 관련해 기관은 2023년에 디지털 대전환을 선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전사 디지털 협의체를 설치하였다. 또한 4개 분과로 구성된 디지털 자문단을 운영하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4회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했고, 88개의 DPG 실현 과제를 선정하였다. 약 3개월간의 실행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해 3대 전략 45개 과제로 재정비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DPG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관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384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 정책을 반영한 '웹서비스 UX/UI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환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3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7건을 실제 업무와 정책에 적용했으며, 6건은 사업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우수성이 인정된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납부, 방류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물정보포털 다국어 지원 등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성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빅데이터 플랫폼 참여 기관 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확인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노력이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목표 관리와 디지털 전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리더십 및 전략기획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윤리경영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64.855%	64.855	1	0.649

나. 평가내용

-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평점 64.855점, 득점 0.649점으로 평가되었다.

【비계량 부문】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은 자회사에 대해 최초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회사의

관리 체계와 윤리적 경영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회사에서 비윤리적 행위와 갑질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 인권 침해, 이해충돌 관련 사건도 각각 발생해 시정,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자회사의 청렴도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74.52점, 케이워터기술(주)가 88.1점으로 나타나 자회사 간 편차가 크다. 두 기관의 청렴도 점수 역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CEO 주관의 청렴혁신 DRIVE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윤리경영 실시간 지원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종합청렴도는 전년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유지하며, 청렴노력도는 전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 처분 결과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었고, 비윤리적 행위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경징계, 회계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윤리문화 정착에 있어 여전히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사전 식별 및 조치를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AI 챗봇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이해충돌과 관련한 징계가 발생한 바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이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인권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인권경영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갑질과 관련된 신고 및 조치 사례, 성비위 사건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기관은

갑질이나 성비위와 같은 구조적인 인권 침해 행위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 마련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자 보호체계의 고도화, 사건 이후 조직 내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층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윤리경영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계량 부문】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지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6.870%	96.870	1	0.969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점검·평가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평점 96.870점, 득점 0.96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경영정보를 오류 없이 충실히 공시한 결과, 주무부처의 경영공시 일체점검 시 무벌점을 달성하였다.

- 고객만족도는 조사 대상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국민인식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조사 득점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0.5	100	0.500
고객만족도 × 80% + 국민인식도 × 20%	0.5	93.741	0.469
계	**1**	**96.870**	**0.969**

라. 추세분석

- 기관은 연중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다단계 검증 확대 등을 통해 공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4년 연속 경영공시 만점을 달성하고 있다.

- 고객만족도는 찾아가는 고객컨설팅 등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으로 지속 고득점을 유지 중이며, 국민인식도는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및 지역주민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나, 득점이 정체 중이다.

【비계량 부문】

㉰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및 투명성 제고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은 국내 기업의 물 문제(물복원) 해소를 위한 민·관·공 협력 기반의 물복원(Water Positive)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물복원 사업모델을 개발하였다. 물복원 협력 협의체를 통해 '장흥댐 습지 개선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삼성전자가 15억 원을 투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마련하였으나,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는 바람직한 성과이다. 다만, 경영공시는 경영투명성확보에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되므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톡톡水렴', '직원이사회', '혁신챌린지', '청렴대나무 숲' 등 다양한 내부 소통채널을 운영한 점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안전관련 VoC 접수건수 총 1,007건 중 K-water 홈페이지(국민소통센터)를 통한 접수는 63건에 불과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는 94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K-water 홈페이지(국민소통센터)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민소통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책임경영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76.850%	76.850	2	1.537

나. 평가내용

- 청년 미취업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점 76.850점, 득점 1.537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대규모 신규채용으로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증가하여 득점이 소폭 상승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장애인 제한공채 실시 및 맞춤직무 개발 등 지속적으로

고용확대 노력 중이나 목표 수준이 지속 상향됨에 따라 득점이 정체 중이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주관부처에서 정한 권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5	84.117	1.262
장애인 의무고용	0.3	25.000	0.07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0.1	100	0.10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0.1	100	0.100
계	**2**	**76.850**	**1.537**

라. 추세분석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매년 「청년고용촉진법」상 의무 채용인원을 달성하고 있지만, 의무고용 초과달성 목표에 미달하여 득점이 정체 중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채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최소 득점기준 수준에 머물렀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지속적으로 만점을 유지 중이다.

【비계량 부문】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추진단 담당자 외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기관은 현장 부서 간담회(4회)를 진행하였고 전사 참여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로 개편하여 실행력을 강화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무지 불만 해소 등 지역별 맞춤형 채용 및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희망지역 내 순환근무제를 전 직렬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성 및 지역전문가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전보만족도가 상승(전년 75.4점 →2024년 77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은 정원의 제한하에서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3년 말 육아휴직, 결원 규모, 퇴직 등 인력을 고려하여 채용목표를 176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채용 여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78명이 증가한 최종 254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대체충원 확대 및 연중 결원 등 예측을 추가 반영하는 상시 결원관리 및 수시 채용 노력을 수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반기 조기채용을 위해 전년 말에 2024년 채용제도 설계 및 육아휴직자 등 결원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노력으로 2024년 1분기에 채용인원의 41%를 채용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었다.

- 2024년에 청년인턴 539명 및 일경험 프로그램 39명 등 578명의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였고, 멘토링 제공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청년인턴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수인턴 수료증 및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하였고, 인턴 유경험자의 정규직 채용 연계를 11명으로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4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청년인턴의 확대 및 내실있는 운영과 실질적 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적 사업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인턴 종료 이후에도 네트워킹 유지 또는 취업지원 관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기관은 2024년 신규 사내벤처 3개사를 선발 및 육성하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19개의 사내벤처를 육성하였고 현재 15개사를 운영 중으로 115명의 일자리 창출 및 CES 혁신상 수상 등 바람직한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통해 혁신 일자리(97명)를 창출하였고, 총 4,668억 원의 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 보유 협력 스타트업 등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혁신적 수단 및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민간 물관련 기업이 영세하고 기술력·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SOC 기관으로서 대규모 재원의 투자집행을 통한 고유 業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기업 및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보다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고졸인재,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의 기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및 적합 직무 발굴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무고용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입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 또는 장애인 친화적 전형 도입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채용을 위하여 채용 가점을 대폭 확대하고 체험형인턴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으로 인턴(5명)을 선발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규직 채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사 소재 지역 외에 전국 소재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부평가내용 ④와 관련하여 기관은 여성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율 50% 초과 및 여성 채용률 증가(2023년 34.8% → 2024년 44.9%)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격주 4일제 및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산업 평균(여성고용율 13.43%, 여성관리자 비율 6.8%) 대비 높은 여성 고용률(22.25%) 및 관리자 비율(12.49%)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여성관리자 육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계량 부문】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72.115%	72.115	1	0.721

나. 평가내용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점 72.115점, 득점 0.721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안전관리등급제는 안전역량 3등급, 안전수준 3등급 및 안전성과 4등급을 달성, 종합 등급은 전년보다 한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되어 전년대비 득점이 하락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은 S등급,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어 평점 90.230점 득점 0.451점을 기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안전관리등급제	0.5	54.000	0.270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및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0.5	90.230	0.451
계	**1**	**72.115**	**0.721**

라. 추세분석

-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강화 및 현장 컨설팅, 맞춤형 안전개선 활동 추진 등을 통해 안전역량은 1등급 상승하였으나,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가 하락하여 안전관리 등급제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6년 연속 S등급을 달성 중이며,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의 경우 기관 점수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하였으나, 1위 기관 대비 상대 비율이 하락하여 득점이 소폭 하락하였다.

【비계량 부문】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통역사와 함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기관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바, 지난 한 해 동안 기관 관할 사업장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 기관장 취임 이후 중대재해가 5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4년 안전의식 수준 진단 설문조사 응답률이 15.82%로 다소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진단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전 국토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본격 활용하여 5대강 본류에 이어 기타 수계와 접경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공주정수장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2인 1조 작업 체계를 도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외부 지적 사항에 따라, 단순 청소·순찰 등 1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생수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안전을 진단하고자 “100인 안전패트롤”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다만, 2024년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처분 1건이 이뤄진 바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CSO(안전책임관, 부사장)와 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전사적 안전혁신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며, 매월 CSO 주관하에 본부장 및 주요 부서장과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에 기관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연도 3등급으로 하락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46.000%	46.000	0.5	0.23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점 46.000점, 득점 0.23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4년 여름철 평균기온 역대 1위 등 이상기후 심화로 인해 에너지 부하가 지속 상승하여 에너지 절약 실적은 평점 10.000점, 득점 0.030점을 기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는 물품구매 사전 컨설팅 운영, 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3	10.000	0.030
녹색제품 구매	0.2	100	0.200
계	**0.5**	**46.000**	**0.230**

라. 추세분석

- 극한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에너지 절감 실적은 한계에 직면하여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는 지속적으로 만점을 유지중이다.

【비계량 부문】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댐 부유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 사회 소득원 활용과 관련하여, 기관은 바이오차(Biochar) 개발, 녹조 주변 축분의 퇴비화 및 고체형 연료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한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성과에 대한 과장된 홍보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댐 관리용 내수면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양성과 함께, 기관 전반에 걸쳐 친환경 및 탄소중립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이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관의 친환경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기관이 지역 주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친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친환경·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회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각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친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관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실적이 전년 40점 만점에서 금년 4점으로 하락한 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절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4년의 탄소중립 예산은 2,359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친환경 예산은 2023년 329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17.7% 감소하였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은 각각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두 분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예산의 감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분야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은 기관의 환경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법규 준수에 대한 조직 차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사례의 최소화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은 다년간 물산업 특화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지원-금융지원-마케팅」을 아우르는 기업육성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통합기술전략과 초격차 기술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기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수출 등 지원과 동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2024년 기관의 사업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물기술 시범사업을 발굴하였고 그 외에도 기관이 지원한 56개 물기업의 해외 수출이 890억 원(전년비 182%)에 이르는 실적을 창출한 것은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87.485점(전년도 92.96점),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 평가에서 98.5점(전년도 94.6점)을 획득하는 등 데이터의 관리, 품질, 공유 등 영역에서 추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 분야인 '개방계획 조기 이행'과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일부 누락 또는 불충분성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간 활용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요자와의 협업을 통한 모델의 설계와 서비스 개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한 「우리강 생태문화 두루찾기」,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구현한 점은 민·관 데이터 융합을 통한 바람직한 서비스 사례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기관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전담조직을 구성(8명)하였고 K-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실적을 제고한 결과 2024년 기술마켓 등록 149건을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술마켓 구매액은 전년 475억 원에서 2024년 68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체계적 혁신제품 지정 지원을 통해 7건의 혁신제품 지정 성과를 나타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구매 현황 또는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평가내용 ④와 관련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553건과 실용신안 2건 중에서 전용실시권 계약된 14건을 제외하고 541건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이전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정부 기술나눔사업에

참여하여 무상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국가 기술거래플랫폼과 연계하여 민간 수요를 발굴하여 46건의 경상기술료 계약과 무상양도 13건의 실적을 창출한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창업 및 경제활성화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8.258%	98.258	2	1.965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부에서 정한 7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점 98.258점, 득점 1.965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7개 항목 중 6개(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구매, 장애인생산품 구매, 국가유공자생산품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항목은 공공구매 관리계획 수립, 구매 담당자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은 대형공사 발주가 다수인 기관의 특성상 실적 규모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 전년대비 득점이 소폭 하락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0.5	93.033	0.465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0.2	100	0.200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0.2	100	0.200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구매	0.2	100	0.200
장애인생산품 구매	0.4	100	0.400
국가유공자생산품 구매	0.2	100	0.20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0.3	100	0.300
계	2	98.258	1.965

라. 추세분석

- 지속적인 기관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실적은 매년 목표에 다소 미달 중이나, 나머지 6개 항목은 지속적으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다.

【비계량 부문】

- 전년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인 소규모 지역업체 대상 재무혜택 부여를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기관은 영세기업 선금보증 수수료 지원을 강화하였고 지역의 소규모 사회경제기업과 함께 댐지역 관광·의료, 농산물판매, 주거협력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상생결제 금액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이용대상 확대 등 노력으로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2024년 141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상생결제 활용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구매액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실적 제고가 필요한 바, 상생결제 거래 금융기관 확대 및 협력사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기관 내부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초순수 R&D사업에 주력하여 '초순수 국산화'를 성공하고 2024년 국내 최초 반도체웨이퍼 생산 공정에 실제 공급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공공기관과 정부(환경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바람직한 협력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기관은 협력기업과 스마트수질 분석기술(수질감시 로봇) 상용화에 성공하여 협력사의 매출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윈윈아너스(동반성장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기관은 2024년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득점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항목별 성과요인과 개선요인을 분석하여 환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기관은 사업대상 지역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댐지원사업비 지원대상을 9개의 소규모용수댐까지 확대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2024년 지역별 본부 주관하에 지자체 및 기업 등과 함께 27개의 지역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연천포천권지사의 「댐잇프로젝트」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지속가능 지역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의를 갖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댐잇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여 타지역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역별 자발적 지역협력과제 추진의 장점은 유지하되 전문기관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기관의 지역협력사업 고유 브랜드를 형성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기관은 개방시설을 지역니즈 맞춤형·체감형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병행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상생을 도모하는 추가 시설개방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시화조력문화관과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화 된 시설, 수도부지를 활용한 용인시 주차공간 개방으로 용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문객 2만 명을 달성한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 등 국민 체감이 높은 시설개방을 추진한 성과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시설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 기관이 보유한 시설 개방 자체로 국민 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 보유 개방 가능 시설을 분석하고 개방 추진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점검·해소하여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관리

(1) 재무예산관리

㉮ 재무예산관리

- 기관은 중장기 재무리스크 도출 및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재무위험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투자 및 예산의 적정성 검증체계 고도화와 회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표준화하고 수탁사업별 별도 계좌를 부여해 관리하는 등 관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SPC 시스템과 본사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매각체계 고도화로 매각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산유형별 매각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매각계획 검증 체계를 마련하였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2023년 4조 5,710억 원→2024년 4조 4,515억 원) 영업이익은 증가하였고(2023년 3,129억 원→2024년 3,662억 원), 영업이익률(2023년 6.9%→2024년 8.2%)과 이자보상배율(2023년 2.1배→2024년 2.7배)도 향상되었다. 다만,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으므로(2023년 5,761억 원→2024년 4,117억 원)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해외사업의 수행에 대해 해외사업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해외 SPC에 대한 계획·실적·수익관리를 정례화하는 등 사업의 선정 및 운영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앙갓(Angat)댐 사업에서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2023년 영업손실 112억 원→2024년 영업이익 379억 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넨스크라 하이

드로의 경우 2024년까지 매출 없이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등 여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외사업에서의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금융부채 등 7개의 지표를 관리지표로 선정하고, 각 지표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위험단계를 구분한 뒤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재무지표와 위험단계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준으로 연계하고 있어, 목표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달성도 기반의 위험단계 분류의 타당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에 기반한 위험단계 연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기관은 정보화사업 심의에 대해 투자액이 30억 원 미만인 안건은 기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3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중 정보화사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투자타당성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기관은 초격차·글로벌 선도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신성장전략단 산하 투자전략부를 신설하는 등 미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 8건을 대상으로 사업화 인큐베이팅을 지원하였고, 신성장 관점의 4대 분야 12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재무관리계획에 신성장 핵심사업 관련 투자액 2.2조 원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용인 반도체산단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초순수 운영사업에도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재무예산관리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자산 매각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매각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은 자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매각전략을 수립하였고 자산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매각계획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④와 관련하여 중장기 재무계획 상 자구노력의 목표 대비 실적과 관련하여, 수익 확대 부문에서는 광역수도 공급량 증가가 전망 대비 하락함에 따라 목표에 미달하였으나(2024년 목표 256억 원, 실적 101억 원),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2024년 목표 2,085억 원, 실적 2,289억 원). 특히 자산매각의 경우 아라뱃길 마리나 배후부지 판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3년간 매년 목표를 달성하였다(3년간 누적 목표 2,331억 원, 누적 실적 3,051억 원).

- 기관의 재무관리방안 중 사업조정 금액에 있어 사업집행 예정액의 이연과 기관 자체의 노력에 의한 집행액의 절감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중장기 재무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변사업 투자시기의 조정을 반영함에 따라 2023년~2027년 대비 2024년~2028년 계획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수변사업 투자(총 6,349억 원)의 집행이 이연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부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매출액/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48 최저 : 0.168	0.212	64.359	2	1.287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4.0% 하락한 0.212를 달성하여 평점 64.359점, 득점 1.287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지속적인 용수 공급확대 투자에 기인하여 광역 및 댐용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발전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업 매출 증가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수변사업 매출 감소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4.4조원을 달성하였다.

- 총자산은 재고자산 및 건중 자산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한 20.6조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적극적인 매출 확대 노력으로 '22년까지 실적이 지속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변사업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최근 득점이 정체 중이다.

㉯ EBITDA 대 매출액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EBITDA/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322 최저 : 0.226	0.262	58.558	2	1.171

나. 평가내용

-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0.262를 달성하여 평점 58.558점, 득점 1.171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EBITDA는 댐 저수량을 활용한 발전량 확대 및 적극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1.1조원을 달성하였고,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른 수변사업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4.4조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EBITDA대 매출액 실적은 '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되어 소폭 상승하였다.

㉰ 부채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부채/자기자본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534 최저 : 0.836	0.629	93.706	2	1.87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 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0.9% 개선된 0.629를 달성하여 평점 93.706점, 득점 1.874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수변 및 수도 투자확대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로 부채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1.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 자기자본은 순이익, 출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3조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기업 최고 수준의 부채비율 개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이자보상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영업이익/이자비용	목표부여 (편차)	최고 : 5.390 최저 : 1.938	4.076	60.968	2	1.219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대비 20.2% 상승한 4.076을 달성하여 평점 60.968점, 득점 1.219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영업이익은 전력료 상승, 발전단가 하락 등의 재무위험요소를 댐 저수량을 활용한 발전량 확대 및 적극적 원가절감 노력으로 극복하여 전년대비 8.0% 증가한 4,519억원을 달성하였다.

- 이자비용은 최적 유동성·차입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109억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19년 이후 이자비용은 지속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후 영업이익 실적에 따라 이자보상비율 실적도 변동되고 있다.

㉮ 일반관리비 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일반관리비/매출액	목표부여(편차)	최고 : 0.056 최저 : 0.071	0.068	36.141	1.5	0.542
일반관리비/평균인원		최고 : 27백만원/명 최저 : 32백만원/명	33백만원/명	20.000	1.5	0.300
계				28.067	3	0.84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통해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평점 28.067점, 득점 0.842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주요 원가상승 및 정수처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2,971억원,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2,302억원을 기록하였다.

-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른 수변사업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4.4조원, 평균인원은 일부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일반관리비는 원가상승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액과 평균인원의 변동에 따라 일반관리비 관리 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부가가치/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308백만원/명 최저 : 246백만원/명	282백만원/명	65.687	3	1.971

나. 평가내용

-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해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4년도 기관의 직원 1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82백만원을 달성하여 평점 65.687점, 득점 1.971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전년대비 지분법을 반영한 세전 순이익은 9.6%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9조원을 기록하였다.

- 평균인원은 일부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8% 감소한 6,916.8명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확대, 원가절감 등 지속적 부가가치 향상 노력으로 '22년까지 부가가치가 지속 상승하여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3년 급격한 부가가치 감소로 실적이 하락하여 정체중이다.

㉯ 자본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부가가치/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19 최저 : 0.089	0.105	63.378	3	1.901

나. 평가내용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해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4년 기관의 자본생산성은 전년 대비 2.7% 하락한 0.105를 달성하여 평점 63.378점, 득점 1.901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전년대비 지분법을 반영한 세전 순이익은 9.6%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9조원을 기록하였다.

- 가동률을 반영한 총자산은 재고자산 및 건설중인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 상승한 18.6조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부가가치 최고점을 기록한 ’22년을 제외하고, 자본생산성은 10% 중·후반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만족도 조사 응답률 제고 및 성과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관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응답률과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가 전체 재직자의 약 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피드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보다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댐 전문 조직의 복원, All-in-one 조직 업무 시스템의 운영 및 정비, 가변통합정원제 도입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인력 자원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조직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 조직의 기능 강화와 통합적 시스템 운용은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업무를 제거하며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향후에는 교육 수요를 사전에 진단하고, 교육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며, 이를 개인의 경력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성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정책 이행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신규 지표의 발굴, 본부 중심의 하이브리드 평가방식 도입 등 성과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다각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저성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저성과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과 부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인 성과 향상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③과 관련하여 직무 중심 HRD 체계 구축과 직무-역량 매칭 및 평가 관리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 이를 통해 각 직원의 역량에 맞는 직무를 배정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역 거주민이 위촉되어 활동하는 청결지킴이 관련 의무교육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11월에 업무 기준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관련 준법

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충족시키고, 교육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④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직무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대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 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더해,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평가와 환류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의 재취업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 실효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임금피크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직원들의 경력 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일·가정 양립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아이좋아 K-water 1.3’ 프로그램 운영, 유연시간제 활용 확대, 직장어린이집 6개소로의 확장, 모성보호 휴게실 정비, 가족친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점은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관리자 대상 인식 제고 교육, 제도 활용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근무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용성 강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부서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인사 만족도와 복지 만족도가 정체되어 있어 구성원 몰입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직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직자 대상 리보딩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과 환류 작업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더불어 자회사의 제도 및 복지 혜택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조직 몰입도와 구성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가정 양립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은 K-water 특화형 노사소통촉진자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노사협력 기본역량 함양 및 숏폼 도입 등 미래세대 맞춤형 노무 교육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관은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점검 및 전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만 중간 평가 차원에서 노동이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기관은 노사갈등 선제적 관리·예방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중대갈등 Zero’를 달성하였고, 실시간 소통 채널 신설로 인해 노사 간 의사소통 효과성 지표가 90.3점에서 92.8점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 가치 기반 제도 개선으로 공사 최초 청렴 노력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갈등진단(14문항)을 통해 파악된 갈등 유형별 수준에서 승진·전보(4.65점), 근로조건(4.56점), 일반직-운영직-실무직 간 갈등(4.11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세부평가내용 ②에 대해 기관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실현’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4대 방향, 9대 추진과제, 3대 전략목표, 9대 성과지표로 구성된 2024년 노사관계 운영 방향을 수립하였다. 다만 유연한 소통을 위한 ‘소통정례회’를 신설하고 안전 문제 등의 현안을 적기에 해소하였다고는 하나, 최근까지 꾸준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세부평가내용 ③에 대하여는 기관이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특근식대 제도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2024년에는 양방향 소통을 위한 新소통채널인 ‘다가가는 CEO, 대의원대회’를 구축하여 안전의식 제고 등 조직 현안에 대해 의견교류와 제도개선까지 완료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사관계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한국수자원공사는 간부직과 비간부직 간 권한 및 책임 등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직위평가와 직무평가로 구분해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간부직은 1개 이상의 직무와 공통역량(관리·통솔·책임의 역할)으로 구성된 ‘직위’로 직무와 역량을 함께 평가한다. 비간부직은 간부직의 관리·감독 아래 개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직무’ 단위로 운영되며, 직무 난이도, 요구기술 및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직급체계 내 직위 부여는 일반적으로 2급(을) 이상으로 하나, 직무능력과 역량이 우수한 3급 이하도 직위를 부여하는 ‘직위·직급 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직된 직급체계를 탈피하여 유연성과 직무전문성을 고려한 직무중심 인사의 취지를 살리고 연공성을 완화하고 승진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보

인다. 비간부직은 직무환경을 5단계로 평가하여 직무등급 6단계와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열악한 직무환경에서 이뤄지는 직무의 가치를 인정하여 직무급에 반영함으로써 기피사업에 대한 근무 동기유인을 제공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경영지수가 향상하였다.

- 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기반 직무분류와 직무분석 자동화를 추진하여 업무분장 입력과 동시에 전사의 직무와 인력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한다. 사람 기준이 아닌 업무비중 기반으로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조직·사업·직무별 수행인력 비교 및 누적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 자료를 통해 조직진단과 개편, 정원조정과 재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전 직원에게 시스템을 개방하여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고 인적·물적 자원배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수행 및 관심 직무 관련 교육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되고 동일 직무 대비 자신의 직무역량 교육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수준을 점검하고 동기부여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무기술서의 경력개발경로를 참고하여 스스로 직무경험을 확장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 기관은 전 직군에 대해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직의 수행직무에 따른 직무급 역전, 본사 대비 더 높은 현장 직무급 가능, 실무직의 승진 없이도 직무숙련도에 비례하여 급여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직무급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무 단위가 아닌 사업군별 직무수행환경평가가 개별 직무의 직무환경 점수를 타당하게 반영하는지 분석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위/직급 단계별 분류에서 벗어나 개별 직무별로 직무가치를 평가하여 직무급에 반영하고, 직무등급 간 차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을 권유한다.

- 장기적인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참과 직원 설득을 통해 직무급 본래의 취지와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갖는 장기적인 이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기관 특성에 적합한 직무중심 인사 원칙과 제도를 정립하고 직무 전문성과 직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심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은 연령 및 부서별 니즈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 과제 4건을 발굴하였다. 또한 설문 기간을 확대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다. 다만 만족도 조사 전체 결과를 보면 기관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Q9-Q10)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2,833천 원에서 당해연도 2,886천 원으로 증가한 점은, 향후 복리후생비의 지속가능한 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①과 관련하여 신임 노동조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T/F를 운영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내부규정 중 주택구입자금 대부 이자율을 COFIX 금리로 적용하고, 기관 소유 주택 이용 시 일부 관리비를 기관이 부담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2.5%로 설정하고,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등 총 4건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세부평가내용 ②와 관련하여 저출생 극복 등 노사공동 가족친화경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4건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지세부항목 중 '마음돌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 보건관리' 항목의 만족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법률상담 서비스, 사내 복지시설(커피숍 등), 사업장 내 부대시설(체육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4) 총인건비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목표부여	2.5% 이내	2.299%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인상률 범위는 2.5%이내이며, 기관의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299%로 지침에 따른 인상률 범위를 준수하여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총인건비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관리 노력으로 정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2.5%를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물공급서비스 사업, 물안전서비스 사업, 물융합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된 3개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물공급 안정성,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물공급 효율성, 치수 안전도, 이수 안전도, 안전관리율,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물산업 육성 노력도, 신재생에너지 성장성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라고 판단된다. 물공급서비스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여타 지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선진화를 위해 유수율 달성도와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여 지표의 지속성과 기관의 개선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물안전서비스 사업의 안전관리율은 최근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중치를 높여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물융합서비스 사업에서는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9개 계량지표 8개 지표가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물공급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 혁신, 포용적 물복지 강화,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 3개 대상사업을 설정하여 14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행하였다. 물안전서비스 사업은 물재해 대응강화, 유역 물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3개 대상사업을 설정하고 10개 실행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정책우선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에 해당된다. 물융합서비스 사업은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 수변도시 가치 창출, 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플랫폼 강화의 4개 대상사업을 설정하여 10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행하였는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물공급 서비스 사업

(1) 물공급 안정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50% + ②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50%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 Σ (단수인구 × 단수시간) / 총 관로연장(km) •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 Σ (단수인구 × 단수시간) / 급수인구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광역) 단수사고 예방노력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000 최저치 : 0.636	72.134	20.0	2.0	0.400
(지방)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000 최저치 : 0.325	0.000	100.0	2.0	2.000
합 계				**60.0**	**4.0**	**2.4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역상수도와 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22개 지방상수도의 단수사고 저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단수사고 예방노력'은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발생으로 평점 20.0점, 득점 0.400점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은 지방상수도 단수사고 0건을 기록하여 100.0점을 달성, 총 평점 60.0점, 득점 2.4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시설 노후화로 인해 광역상수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발생 이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 시설연계 공급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수 인구가 많고 복구 소요시간이 길어져 최저 득점을 기록하였다.

- 지방상수도는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및 고도화 등 체계적 위기관리 노력으로 단수인구와 단수시간 모두 '0'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로의 특성상 육안식별이 불가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단선 관로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단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 기관은 관로 복선화, AI 기술을 활용한 관로 사고 감지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단수 사고 예방 노력 중이며, '24년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무단수 또는 단수저감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역) 단수사고 예방노력	0.000	0.796	0.000	0.000	0.000	72.134
(지방)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0.002	0.000	0.002	0.402	0.006	0.000

(2)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60% + ②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 달성률 40%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횟수 /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
-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 제공건수 / 목표건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목표부여	최고치 : 1.0000 최저치 : 0.7998	0.9999	99.9	2.4	2.399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목표대실적	129,000	134,007	100.0	1.6	1.600
합 계				**99.9**	**4.0**	**3.999**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광역 및 지방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과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은 평점 99.9점,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은 만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99.9점, 득점 3.999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4년 기관이 실시한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횟수는 총 58,662건이며, 폭염으로 인한 조류경보 발생 등 정수처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AI조류 감시체계 구축, 고도처리 도입 등 철저한 관리로 6건을 제외한 58,656건이 글로벌 수질기준을 통과하여 고득점을 달성하였다.

- 수돗물 안심서비스는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가정방문 서비스로서,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목표(129,000건) 대비 높은 실적(134,007건)을 달성하여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극한 폭염 등 이상기후 심화에 따라 조류독소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99.9%)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수돗물안심서비스 제공률도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0.9999	0.9999	0.9998	0.9994	0.9998	0.9999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	-	1.077	1.080	1.038	1.039

(3) 물공급 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광역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10% + ② 지방유수율 달성도·향상도 90% (달성도 83.8% + 향상도 16.2%)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광역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목표부여	최고치 : 1.000 최저치 : 0.800	1.000	100.0	0.400	0.400
지방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목표부여	최고치 : 0.851 최저치 : 0.816	0.853	100.0	3.015	3.015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857 최저치 : 0.844	0.853	76.6	0.585	0.448
합 계				**96.6**	**4.0**	**3.863**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상수도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광역 유수율'은 100%를 달성하였고 '지방유수율'도 85.3%를 달성하여 총 평점 96.6점, 득점 3.863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 등으로 광역상수도 유수율은 100%를 기록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구역별 이상 구간 실시간 분석, 전문인력 파견 등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85.3%로 상승하여 달성도는 만점, 득점은 3.015점을 달성하였으며, 향상도는 평점 76.6점, 득점 0.448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광역상수도 유수율은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100%)을 유지하고 있다.

-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한정된 지자체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문 노하우의 적극 활용과 디지털 기반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역상수도 유수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상수도 유수율(%)	84.2	84.3	84.3	84.8	85.1	85.3

(4) 물공급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물공급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 혁신, 포용적 물복지 강화,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을 평가대상 사업으로 설정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지역 간 차별없는 국민 물복지 혜택 확산, 민생경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은 국민기대 수질 달성률, 단수시 비상공급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달성도(기존 현대화사업성과판정), 급수 취약지역 인구 해소,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 상수도정보서비스이용만족도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6개의 지표를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첨단기술기반 물공급 전환(기존 물 생산·공급 스마트화), 지방상수도 선진화 지원, 국민친화 요금제도 운영, 산업맞춤형 서비스강화(기존 초순수 기술자립과 산업육성, 기업맞춤형 용수공급)등 전년도 보다 1개 감소한 4개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성과지표로 일본의 고도정수처리 도입률과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선정하고 기관이 달성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전년도에 성과지표에 포함되었던 탄소중립 정수장 지표는 물융합사업으로 이관하였고 계량지표와 중복되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 지표는 폐지되었다.

- 기관은 23년도 평가에서 사업간 균형적 예산과 인력의 투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경기침체와 반도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체감서비스 개선사업의 성과목표를 이전년도에 '고객 체감형 수돗물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정책 이행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서 '민생경제 및 국가경제발전 기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년도에 '수돗물 공급혁신 사업'의 '초순수기술자립과 산업육성' 지표를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에 통합하고, 관련된 예산을 이관하는 등 사업과 인력 및 예산의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대상사업 성과목표의 변경과 하위의 세부사업 이관 결과, 평가 대상사업간 구분 기준 및 논리의 일관성과 명확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신규로 도입된 상수도정보서비스 이용만족도 지표는 서비스 활성화 또는 만족도 측정 등 기관의 정책목표에 더 부합하도록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물공급 전문기술을 집약한 2024-2040 미래 상수도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발암물질 등 수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한 예측·대응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전년과 대비하여 조류경보 1.7배, 맛·냄새 9배가 급증한 상황에도 조류 독소와 냄새를 기준 이하로 세심하게 관리하였다. 국내에서 10대 기계기술로 인정받은 AI정수장은 인니 新수도 기술수출을 통하여 해외시장에서도 사업 잠재력을 증명하였다. 기관은 수돗물 공급혁신 사업인 국고 출자사업인 광역상수도 스마트물관리(SWM) 사업을 2024년 완료하여 디지털 요소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대규모 수도사고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화를 제고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사업별 기술 성숙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AI정수장은 43개소 전국에 적용하였지만, DT와 자산관리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추진된 만큼 全 광역에 본격 적용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지방상수도 운영·건설 노하우에 기반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역대 최다 성과판정과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여 포용적 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내에서 검증된 스마트 관망관리(SWNM) 브랜드마케팅으로 캄보

디아 등 3개국 220억원의 신사업을 발굴하여 착수하는 등 첨단 기술의 성과가 국내외로 입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국 상수도 통합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위기대응 시스템을 금강유역에 선도적 도입하였다. 기존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은 광역-지방간 상호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나 지방-지방의 데이터 연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통합 용수계통 기능을 금강에 시범구축하여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적정 공급량과 공동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단순 기술 지원으로 지자체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수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수도 정보를 학습한 Water Chat과 기술지원 웹서비스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추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OECD 최저수준의 수도 요금 동결, 사회배려계층 지원 확대 등 국민친화 요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첨단산단 용수공급 및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국가핵심사업의 성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물 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의 장점과 합리적 비용 분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하여 공동관로 복선 구축으로 중단없는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성공 등 반도체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글로벌 수준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고도정수처리 도입률의 경우 가동률 높은 정수장의 고도 도입을 위한 고위험작업을 수행하여 단수·수질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공사를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유수율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한정된 유수율 재원에도 지역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하여 역대 최고 유수율을 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국민기대수질달성률을 제외하고 계획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단수시 비상공급률 지표는 단수예방을 위한 과정지표에 해당되는데, 하천과 도로 횡단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여건에도 현장 품질안전관리를 통하여 복선화를 역대 최장 17.8km

시행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다. 국민기대수질 달성률은 전년대비 조류경보 1.7배, 맛·냄새 물질 등의 악조건에서 AI 수질예측·활성탄 투입 강화 등으로 계획된 목표에 소폭 미달하였다.

- 기관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물공급 전환, 지방상수도 선진화 지원, 국민친화 요금제도의 운영과 산업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비계량 지표의 성과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첨단기술 기반 물공급 전환 지표는 AI 정수장 기술수준 level-3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세계물포럼 등 해외수출마케팅, ISO 기반 성능평가 모델 개발, 성능검증 95% 확보하는 등 AI 정수장 고도화·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은 지방 상수도를 통한 노하우를 통하여 누수 등 신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최적관망관리를 브랜드화하여 해외홍보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확산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 요금제도를 종합진단하여 국민친화 요금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연 15억 원의 요금부담을 완화한 성과가 인정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중장기 및 단기 계획수립과 실행,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등 환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부진 이슈에 대하여도 실적 모니터링, 원인분석과 만회대책에 대한 관련부서 대응, 전사적 장기적 대응 로드맵,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등 적절하게 환류 활동이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역 상수도 고객만족도 보다 낮은 수준인 지방상수도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국민비서 구삐 도입 등 고객서비스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가 어려워하는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육성하는데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상수도 이용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류 활동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가수도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역과 사용자 수 확대 방안, 시스템 접속자 수와 Water Chat 이용자 수에 상관관계 등 다양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공급 서비스 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로 평가한다.

2 물안전 서비스 사업

(1) 치수안전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재해피해액 100%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0.000 최저치 : 29,799	0.000	100.0	3.0	3.0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의 홍수 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재해피해액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24년 홍수로 인한 '재해피해액'은 0원으로 평점 100.0점, 득점 3.000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불확실한 강우패턴,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심화에도 홍수 피해가 없어, '24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액은 0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태풍, 호우 등 어려운 물재해 관리 여건 속에서도 홍수를 가정한 실전 훈련, 디지털 기술 기반 과학적 댐 운영을 통해 '20년 이후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재해피해액 발표 시점에 따른 피해액 규모의 유동성으로 실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해피해액	-	-	245	37,071	238	0

(2) 이수안전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Σ 유역별 가뭄대응노력 =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일수 ÷ 365 × 각 댐 저수용량 비중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한강 가뭄대응노력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1.000 최저치 : 1.000	1.000	100.0	1.438	1.438
금강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 1.000 최저치 : 0.984	1.000	100.0	0.607	0.607
영섬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 1.000 최저치 : 0.510	1.000	100.0	0.238	0.238
낙동강 가뭄대응노력		최고치 : 1.000 최저치 : 0.656	1.000	100.0	0.717	0.717
합 계				**10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연중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유역별 물이용 안정성 제고 노력을 주의단계 기준 저수량 준수 일수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 유역이 365일 주의 단계 기준 저수량을 준수하여 평점 100.0점, 득점 3.000점을 기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연중 홍수·가뭄이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7월 폭우 이후 유례없는 이상 가뭄이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 저수량 확보를 통해 전 유역 모든 댐이 최적 저수량을 유지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 발생으로 '22~'23년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댐·보 연계 운영 등을 통한 대응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수안전도	3.983	4.000	3.984	3.504	3.516	4.000

(3) 안전관리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인명사고(근로자+국민) + 시설(설비)사고 / 상시근로자수 + 관로연장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0.003 최저치 : 0.008	0.009	25.0	2.0	0.5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인명 및 시설사고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서, 시설(설비)는 무사고를 달성하였으나 인명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평점 25.0점, 득점 0.5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100개 이상의 작업장과 전국 단위의 관리구역, 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 여건이 상존하고 있다.

- 안전조직 확대, 현장 컨설팅 및 맞춤형 안전 개선 활동 추진 등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으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득점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은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3년 역대 최저 안전관리율을 달성하였으나, '24년 인명사고 승인 건수 증가 및 중대 재해 발생으로 실적이 하락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전관리율	0.009	0.006	0.006	0.006	0.005	0.009

(4) 물안전서비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물안전 서비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물재해 대응강화, 유역 물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구체적인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특히, '대내외 환경분석을 우선 고려하는 등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작년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STEEP 분석 및 AHP 기법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2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계량 성과지표인 디지털 물관리체계 구축은 폐지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비계량 성과지표로 개선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작년 글로벌 성과지표인 조류발생 예측 정확도는 폐지하고 댐 환경기준 1등급 달성도를 신설하여 국민 체감이 가능한 수질지표를 신설한 점, 증가하는 노후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력 지표 및 글로벌 성과지표로 위성 활용기술 정확도를 신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기관은 물안전서비스 사업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범위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도 포함됨을 인식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대상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일반재해 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특히 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안전 서비스 사업을 너무 좁게 정의하며 평가대상 사업에 아예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경영관리 범주에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가 이미 존재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표도 사실상 주요 사업 범주의 물안전 서비스 사업에서 이미 중점 관리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들인 '물재해 대응강화' 및 '유역 물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어 구성되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관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상황인 근로자 안전문제는 해당 지표에서도 일부 제한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주요사업 범주의 핵심 평가대상 사업으로 통합하여 설정하고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들을 신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다른 SOC 평가대상 기관들도 대부분 근로자 및 일반 국민의 재해예방을 주요사업 범주에서 별도의 중점 지표들로 선정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특히, 물안전서비스 사업의 계량지표인 '안전관리율'에 이미 근로자와 국민의 인명사고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계량 성과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신설하고 지속 관리하여 두 가지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 소중한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건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상생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시민재해의 발생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재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통합 안전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물재해 대응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 최고 댐 수위 도달이라는 외부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댐 방류를 통한 선제적 홍수 대비와 연중 강우 패턴을 고려한 과학적인 댐 저수량 관리를 통해 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임원진이 직접 참가하는 실제상황과 동일한 점검 및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였고,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여 댐 방류정보에 대한 대국민 통보 기간 및 방법을 개선하여 유사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홍수기 전 체계적 분석에 기초한 사전 수위 조절, 장마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운영하여 하류 홍수를 과학적으로 예방, 장마 후 강우량 급감으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량을 확보하는 등 연내 발생 가능한 홍수와 가뭄에 대한 통합적·맞춤형 대응으로 물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 기관은 인력에 주로 의지하던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물재해 예방을 위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해외사업까지 수주하며 지속적으로 물관리기술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정밀한 물재해 분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성기반 물재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점, 열화상 누수감시 시스템 및 수중드론을 이용한 스마트 댐 관리 기술도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기후대응댐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적으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산업용수로 활용하고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은 물론 환경까지 개선하려고 추진 중인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무엇보다도 최근들어 근로자 사망사고의 발생을 포함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나, 범국가적 차원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보호 조치들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주공사 하도급업체 담당 근로자 –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 소속 근로자 및 소위 '산재에 취약한 근로자'(예: 고령자, 신입, 비정규직, 외국인 등) - 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기관에서 발생하는 국민 인명사고도 현재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이에 대해 우선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맞춤형 대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안전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예: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 요구, 시민들의 위험 상황 모니터링 및 신고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재해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댐 최적 운영 달성률, 비상방류 및 지진 대비 노후시설 재해 대응력 확보율, 댐 환경기준 1등급 달성도, 대체 수자원 시설용량, 지역 상생협력 사업비를 포함한 총 5개의 계량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계량 성과지표 목표 달성은 기관이 연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관리한 결과이므로, 달성 목표 수준이 과연 도전적 수준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각 계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환경 개선사업 추진

댐의 수는 목표치에 조금 미달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과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댐 상류 오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시설을 통합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댐 상류 수생태를 개선하여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선제적 설비확충을 통한 녹조대응 인프라를 강화하여 역대 최장 녹조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녹조대응 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수질관리 향상과 국민불안을 해소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평가대상 사업별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유관부서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내었다. 특히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경영실적 환류 활동을 통한 성과 도출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24년 성과평가 및 환류 활동을 통해 25년도의 중점 추진계획을 주요 사업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사업의 연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민소통 센터를 통해 파악된 이슈들을 해소하고 내년 중점 추진계획에 반영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안전서비스 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로 평가한다.

3 물융합 서비스 사업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수변공간 조성성과 40% + ②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60%
• 수변공간 조성성과 : 수변공간 조성면적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당해연도)
•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 대금회수금액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당해연도 포함 3개년 평균)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수변공간 조성성과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4.162 최저치 : 3.186	4.479	100.0	0.4	0.400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1.770 최저치 : 0.478	1.080	57.2	0.6	0.343
합 계				**74.3**	**1.0**	**0.743**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사업 건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평점 만점, 득점 0.400점,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평점 57.2점, 득점 0.343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74.3점, 득점 0.743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철저한 공정관리 및 송산 서측지구 착공으로 인해 조성면적이 55.3% 증가하여 평점 100.0점을 달성하였다.

-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도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한 약정금 적기 수납, 적극 연체관리로 대금회수금액이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증가 효과로 평점 57.2점에 머물렀다.

라. 추세분석

- 수변공간 조성성과는 '22년 설계·보상 구간에 진입하여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공사 단계 진입 및 공정관리를 통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은 적극 분양 추진 및 매출 달성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23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전 성과 영향으로 득점은 하락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변공간 조성성과	3.604	3.614	3.952	3.190	3.674	4.479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0.521	0.591	0.874	1.386	1.114	1.080

(2) 물산업 육성 노력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 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국내시장 매출액 + 해외시장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313.608 최저치 : 201.144	314.078	100.0	2.0	2.000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창출한 매출액인 국내시장 매출액, 기관의 ODA사업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해외시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점 100.0점, 득점 2.000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술 우수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우대 노력, 기술개발·실증, CES 동반 진출 등 물산업 생애 전주기적 육성·지원 및 ODA 대상 국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확대 노력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0%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스타트업·영세기업의 자금·기술개발 여건 부족 및 국내·외 판로 확보 어려움, 경제 위축 등으로 '22년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본격적인 ODA 사업 확대로 '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외시장 매출액(억원)	-	181.1	206.0	201.2	257.4	314.1

(3)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① 신재생 설비용량 50% + ② 신재생 발전량 50%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신재생 설비용량(MW)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1,469.2 최저치: 1,375.7	1,435.2	70.9	0.5	0.355
신재생 발전량(kWh)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523,322,539 최저치: 484,313,622	497,637,628	47.3	0.5	0.237
합 계				**59.2**	**1.0**	**0.592**

나. 평가내용

- 상기 지표는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설비용량과 발전량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지표로서, 신재생 설비용량은 평점 70.9점, 득점 0.355점을 달성하였으며, 신재생 발전량은 평점 47.3점, 득점 0.237점을 달성하여 총 평점 59.2점, 득점 0.592점을 기록했다.

다. 항목별 원인

- 산업부의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계통연계 지연 및 준공 순연으로, 설비용량 증가 속도가 정체되어 전 년대비 득점이 소폭 하락하였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조석 변화 주기에 따른 최저실적, 실종자 수색에 따른 발전 중지 등 조력 발전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하여 발전량 실적이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신재생 설비용량은 입지 조건, 주민 동의,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설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발전량은 일조량 및 조석 변화 주기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1,364.0	1,364.6	1,390.4	1,408.9	1,422.4	1,435.2
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	499,720,479	482,129,556	480,547,013	483,771,034	503,818,081	497,637,628

(4) 물융합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물·에너지·도시의 융합을 통한 물 에너지 확산 및 수변도시 조성, 자원의 공유를 통한 물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내실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 수변도시 가치 창출, 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플랫폼 강화를 평가대상 사업으로 설정하여 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기관은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전략연계, 정책부합, SMART 분석으로 산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신규 지표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였다. 총 2개의

글로벌 지표, 6개의 계량지표, 그리고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수변 사업 분양금액 계량지표는 기존 수변 사업 생산성·건전성 지표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개선되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에서 초격차 중심 해외사업수주 지표가 신규 도입되었고, 그 외 지표들을 유지하여 전년도와의 성과 비교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총 8개의 중점과제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성과지표의 경우, 모니터링 체계 및 주기를 명확히 설정하며 PDCA 평가방식을 적용하였고, 우수사례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한 환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측정시스템과 회의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미래지향·지역 상생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물순환 촉진법 제정 참여와 관련 역량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물순환 촉진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또한, 성과도출의 장기성을 고려해 2029년까지 중기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한 점은 수변도시 가치창출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수변도시 가치 창출 사업 계획 중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기관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사업으로, 일정한 정책적·외교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성격과 현지 여건의 복합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함께, 단계별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저탄소 물에너지 확산 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발전과 지역수익을 결합한 융복합 사업으로, 교차발전모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착공지연 등 불확실성이 있

었으나, 전사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공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공기업 최초로 RE80을 달성한 이후 RE100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화조력 254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공장에 본격 공급하였고, SK하이닉스에는 남강 대수력 재생에너지를, 우리은행에는 안동 소수력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롯데케미칼과는 수상 태양광을 연계한 PPA 및 MOA를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민간 협력 기반의 공급체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점으로 공공부문 RE100 이행 모델의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 기관이 글로벌 플랫폼 강화를 위해 추진한 파트린드 및 앙가트 수력발전사업의 흑자 전환을 통해 재무 안정성과 투자금 상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이는 기술력, 사업관리, 위기대응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초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수익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물융합 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제도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운영 전반에 걸쳐 사전적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의 그린 수소 융합사업과 수열 에너지·대용량 히트펌프 사업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다변화 대응력 제고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다. 다만, 두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류 탱크의 기름 유출과 다이옥신 검출과 같은 환경오염 사례가 발견된 점은 기관의 친환경 추진 취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발방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 환경관리 체계구축과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이 글로벌 수준의 성과지표인 스마트 시티 조성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업 규모와 사전 준비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획 및 리스크 대응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경제·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40개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금 유동성에 대한 초기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인 SPC를 성공적으로 설립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복합도시 개발사업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와 자금 안정성 확보 측면 모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기관의 전략적 기획력과 실행의지를 보여주었기에 높이 평가된다.

- 기관은 물산업 생태 조성사업과 글로벌 플랫폼 강화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상담액, MOU, 상용화 전 기술 등이 실제 사업성과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해 과대 반영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DA 등은 수요국의 수용 역량에 따라 실질적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어 향후 정량성과 실효성을 함께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 구축한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계획부터 환류에 이르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2023년도 주요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 및 확산 과제를 토대로 2024년도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을 적시에 실행한 점은 성과관리의 선순환 체계 정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진 이슈에 대한 관리체계를 운영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관의 의지와 책임성을 보여주며 환류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관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글로벌 플랫폼을 강화하고 ESG 경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AWC 활동은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국가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감대 형성과 실행 중심 협력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국제 물 이슈 대응에서의 중장기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이 추진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증설 및 태양광 개발사업은 친환경 취지에 반해, 수익성이 낮아 재무적 부담과 기회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 선제적 대응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물융합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물공급서비스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물공급 서비스의 지표를 물공급 안정성,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물공급 효율성으로 구성하고 있다. 물공급 안정성은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공급 안정성을 국민이 체감하는 단수사고 예방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모두 단수인구 수와 단수시간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만, 광역은 분모를 총 관로연장으로, 지방은 급수인구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과 지방의 관리범위, 대상고객 등 상이한 공급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표 구성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는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과 WHO 및 OECD 대표국가의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별 적용한 수질기준으로 수돗물 안심서비스와 기관이 직접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서비스 지표는 지방상수도 사업 특성을 활용한 국민접점 체감형 서비스로서 5개 항목의 수질기준(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동) 검사를 통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다. 한편, 물공급 효율성 성과지표는 상수도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수율 달성도와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여 최고 수준에 도달한 유수율의 지속가능성과 기관의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이 보다 어려운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달성도의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고 있어서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개선하도록 한 지표구성이라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이 물공급안정성 지표와 물공급효율성 중 지방상수도 향상도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물공급 안정성 지표는 최고목표가 0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광역상수도의 총관로연장 길이가 길고 노후관이 많아 목표달성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의 경우 목표 부여와 목표 대 실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반면,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률 지표는 중장기 목표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지표도 3년째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하고 있고 목표의 도전성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아울러, 물공급 효율성 지표 및 광역상수도 유수율 달성도와 지방상수도 유수율 달성도 지표도 목표부여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목표의 도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안전서비스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물안전서비스 사업의 계량지표를 치수안전도, 이수안전도, 안전관리율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각각 3점, 3점, 2점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율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치수안전도의 측정에 이용되는 재해피해액은 실제 재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법원판결 시점에 따라 이후 수년간 실적에 반영되고 있어 실적이 평가대상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기에는 적합한 지표가 아닐 수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치수안전도 지표, 이수안전도 지표 그리고 안전관리율 지표에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치수안전도 지표의 경우 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재해피해액으로만 평가하므로 기관이 성과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2020년 홍수피해 이후 24년까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지표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수안전도 지표의 경우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목적댐 저수량을 기준치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안전관리율 지표는 댐 작업의 특수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3) 물융합서비스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의 수변 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물 산업 육성 노력도,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은 계량평가를 위한 핵심지표이다. 이 중 수변 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의 산식은 단위 비용당 확보한 수변공간의 면적을 뜻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는 물리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하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의 산식은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일정한 수익구조를 갖춘 경우,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생산성 지표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의 물 산업 육성 노력도 지표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산식 구조와 가중치 체계가 재정비되었으며, 기관의 실질적인 노력 수준에 따라 계량값이 유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 지표는 지난해 기관의 개편된 신재생 에너지 평가 산식이 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등 최근의 성장 흐름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지표, 물산업 육성 노력도 지표,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 지표에 대해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특히, 수변공간 조성사업의 건전성 지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금회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 지표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친환경발전설비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재생 발전량 지표의 경우 조수차, 일조량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목표의 도전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물산업 육성 노력 지표는 국내시장 매출액과 해외시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편차를 산정하므로 상대적으로 편차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2년간 만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목표가 도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총평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물공급 서비스 지표를 물공급 안정성,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 물공급 효율성으로 구성하고 있고 물공급 안정성은 단수인구와 단수시간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광역은 관로연장 대비, 지방은 급수인구 대비로 산정해 공급체계 특

성을 반영한 적절한 지표로 보인다.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는 국내외 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돗물 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측정하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서 적절하다. 물공급 효율성은 유수율 달성도 및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고, 지방상수도에 가중치를 둬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물안전서비스 성과측정을 위하여 치수안전도, 이수안전도, 안전관리율로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중대재해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율의 가중치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치수안전도의 재해피해액 산정 시 시점 불일치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물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수변 사업 생산성은 예산 대비 확보 면적 기준으로, 건전성은 수익구조 기반의 재무평가로 구성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역 특성 반영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요구되고, 물 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지표는 산식 개편을 통해 적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양호”로 평가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총 9개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중에서 물공급 안정성 지표, 물공급 효율성 지표 중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도 지표, 치수안전도 지표, 이수안정도 지표, 안전관리율 지표,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지표, 물산업 육성 노력도 지표 및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지표 등 8개 지표가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반면, 글로벌 수질 기준 달성도 지표와 물공급 효율성 중 광역유수율 달성도 지표와 지방유수율 달성도 지표는 목표 부여와 목표 대 실적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이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4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①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적극 수행 및 대국민 홍보

- 기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요금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9년간 동결하였다. 이는 광역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착수, 홍수 무피해 달성 등의 성과를 통하여 국정과제 69번(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② 경제정책방향,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에 포함되어 목표 수립 및 주기적 집행관리를 받고 있는 신속투자집행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 등

- 기관은 신속투자집행 대상 기관으로서 투자집행 목표수립 및 실적과 관련하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2024년 전체 목표의 31.7%에 해당) 실적은 목표 대비 107.2%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2024년 전체 목표의 56.2%에 해당) 실적은 목표 대비 104.5%를 기록하여 1분기에 이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이 목표 대비 101.2%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하였다.

③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 기관은 정원의 제한하에서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3년 말 육아휴직, 결원 규모, 퇴직 등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채용목표를 176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신규 채용 여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78명이 증가한

최종 254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는 2022년 316명 대비 감소하였고 2023년 204명 대비 증가한 실적으로 분석된다. 이 중 청년 채용은 2022년 288명→2023년 194명→2024년 245명에 이르고 있다. 기관은 2024년에 청년인턴 539명 및 일경험 프로그램 39명 등 578명의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였고, 멘토링 제공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청년인턴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청년인턴 유경험자 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고졸 인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의 장애인 채용은 2022년 40명→2023년 12명→2024년 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의무고용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관은 장애인 입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 또는 장애인 친화적 전형 도입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고졸인재 채용 노력을 통해 2022년 80명→2023년 17명→2024년 23명을 채용하여 정부의 권장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채용을 위하여 채용 가점을 대폭 확대하고 체험형인턴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으로 인턴(5명)을 선발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규직 채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사 소재 지역 외에 전국 소재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업무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과제로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수행하여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도·전기·통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우수성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